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마음이론 간의 관계: 어머니의 자율성 및 체계화 지지의 매개 역할*

성 지 현[†]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본 연구는 유아의 마음이론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자율성 및 체계화 지지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만 4세 유아 101명(남아 55명, 여아 46명)과 어머니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한국판 양육효능감 척도(K-EGSCP)를 사용하여 어머니 보고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어머니의 자율성 및 체계화 지지는 어머니-유아 과제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평정하였다. 유아의 마음이론 이해는 실험자가 제공한 일련의 잘못된 믿음 과제를 통해 측정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마음이론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고, 어머니의 자율성 및 체계화 지지도 유아의 마음이론과 정적인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마음이론에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 및 체계화 지지로 구성된 양육행동 잠재변인의 완전 매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에 대한 사회적 구성주의적 관점과 어머니의 자율성 및 체계화 지지에 대한 자기결정 이론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정책적 시사점과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양육효능감, 자율성 지지, 체계화 지지, 마음이론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1027641).

† 교신저자: 성지현,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호암관 804호
E-mail: sungjh@skku.edu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입장을 조망하고 수용하는 사회인지 능력은 아동의 이후 사회적 유능감과 관련이 있다(Denham et al., 2002; Fenning, Baker, & Jouvonen, 2011). 사회인지 능력이 부족한 아동들은 또래 거부(Deković & Gerris, 1994)나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Denham et al., 2002)과 관련이 있고, 타인의 행동이나 의도에 대하여 적대적인 귀인(Hostile attribution)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e, Lane, Grabell, & Olson, 2013). 사회인지 능력 중 하나인 마음이론(theory of mind)이란 사람마다 신념, 의도, 욕구, 기대, 이해 등과 같은 마음 상태가 각기 다르다는 것과 자신 또는 상대방의 마음상태를 인식하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Wellman, 1990). 이러한 마음이론은 잘못된 믿음(false belief)에 대한 이해에 대한 여부를 묻는 과제들을 통해 측정이 되는데,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만 4세부터 잘못된 믿음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며 만 4, 5세에 걸쳐 마음이론과 관련된 이해와 판단이 점점 명확해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아들은 만 4~5세 시기에 마음이론 이해 능력이 빠르게 발달하기는 하지만 개인차도 그만큼 크게 나타나는 시기이다. 마음이론의 개인차가 왜 나타나는지에 대한 여러 이론적 설명이 있다. 예를 들어, 모듈이론(modularity theory), 이론-이론(theory - theory), 시뮬레이션 이론(simulation theory)과 같이 정신적 표상에서의 구조적인 변화를 강조하면서 마음이론의 인지적인 특성 변화에 초점을 두는 이론들이다. 이러한 이론들은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배제한 채, 유아를 혼자 사고하는 존재로 본다. 반면에,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social constructive perspective)에서는 유아의 마음이론의 발달적 차이가 대인간 상호작용

의 경험과 질의 차이에서 기원한다고 본다(Liszkowski, 2013; Sung & Hsu, 2014; Wellman, 2017). 즉,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관련 개념들의 학습이 일어나고, 경험의 정도에 따라 발달의 연속성과 순서의 차이가 나타나며, 유아가 갖고 있는 사전 개념이나 지식은 이후 마음이론의 발달과 이해에 도움을 주게 된다. 본 연구에서도 마음이론 발달의 개인차를 사회적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출생 후 유아와 가장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며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와의 양육행동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유아의 마음이론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반응적이고 민감한 양육행동이 마음이론 발달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반응적이고 민감한 양육행동이란 아동의 행동에 대하여 적절하게 어머니의 행동을 조절하고(Meins, 1997), 유아의 동기나 마음상태를 반영하는 양육행동을 말한다(Symons & Clark, 2000). 특히 어머니가 사용하는 내적상태에 대한 말(internal state talk)은 아동의 마음이론 발달에 기여한다고 여러 차례 보고되었다(Dunn, Brown, Slomkowski, Tesla, & Youngblade, 1991; Meins, Fernyhough, Russel, & Clark-Carter, 1998; Ruffman, Slade, & Crowe, 2002; Ruffman, Slade, Devitt, & Crowe, 2006). 또한 자녀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권위적인(authoritative) 양육방식과 자녀의 순응을 중시하는 독재적인(authoritarian) 양육방식과 유아의 마음이론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권위적인 양육방식은 유아의 마음이론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독재적인 양육방식은 유아의 마음이론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Reilly & Peterson, 2014; Viden, 2001). 이들은 자녀가 심리상태를

표현하고 스스로 사고하는 것을 격려하는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마음이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최근 부모 양육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자기 결정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을 가지고 살펴보기 시작하였다(예: Bernier, Carlson, & Whipple, 2010). 자기결정 이론은 Deci와 Ryan (1985)이 인간의 세 가지 기본적인 욕구로서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생애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이론으로 제시한 것이다. Grolnick, Kurowski와 Gurland(1999)는 자기결정 이론의 개념을 유아기로 확장시켰고, 유아들의 자기 조절이나 성취, 적응에 있어서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Farkas & Grolnick, 2010; Deci & Ryan, 1985; Grolnick & Farkas, 2002). 이러한 이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연구들은 개별 유아의 요구와 부모의 특정 행동 간의 관계를 연구해 왔다. 특히, 부모의 자율성지지(autonomy support)는 유아의 자율성과 자립심 발달과 관련이 있는 반면, 부모의 체계화(structure)는 유아의 유능성이나 숙달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Farkas & Grolnick, 2010; Grolnick et al., 1999). 또한 부모의 다정함은 유아의 관계성(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간의 연결된 느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agiticbasi, 2005).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와 상반되는 개념으로서의 통제(control; Vinden, 2001), 비판과 물리적 제재(Hughes, Deater-Deckard, & Cutting, 1999)와 힘의 사용(예: 비판 또는 물리적 제재 등)은 유아의 마음이론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자율성 지지보다 통제를 많이 사용할수록 유아가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견해에 관해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론 발달이 늦어진다고 하였다(Vinden, 2001). 한편 유아의 유능성이나 숙달을 도와주는 부모의 체계화 지지는 명확하고, 일관된 안내와 기대, 규칙 등을 통해 유아의 행동과 결과 간에 대한 이해를 돕고(Farkas & Grolnick, 2010; Reeve, Jang, Carrell, Jeon, & Barch, 2004), 자기 조절 학습과 연관이 있었다(Sierens, Vansteenkiste, Goossens, Soenens, & Dochy, 2009).

유아의 사회인지 능력을 측정하는 마음이론 과제에서는 타인의 생각이나 마음 상태를 조망할 수 있는 능력과 인간은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을 바탕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타인의 사고를 유추하여 행동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어머니는 자녀의 관점에서 상황을 해석하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스스로 해보려는 의지를 격려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유아는 타인의 생각이나 마음을 스스로 생각해 보고,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판단을 해 볼 수 있으므로 마음이론과 관련된 기술들을 더 잘 발달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체계화를 잘 하는 어머니는 자녀의 인지적 수준에 맞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유아가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사물에 대한 숙달감을 경험하게 한다. 이러한 숙달감은 다시 동기화되어 스스로 환경과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자기 조절 학습으로 이어져 유아의 인지적 발달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정은 자기결정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며,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와 체계화 지지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인간의 행동은 자신의 신념이나 심리적 상

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양육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믿음, 자신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행동과 발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양육효능감(Coleman & Karraker, 2000)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양육효능감의 개인차가 양육행동 및 훈육 스타일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최형성, 2005; 김현미, 도현심, 2004; Coleman & Karraker, 1998, 2003; Johnston & Mash, 1989; Leerkes & Crockenberg, 2002; Sanders & Woolley, 2005; Shumow & Lomax, 2002; Teti & Gelfand, 1991).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들은 자녀의 요구나 신호에 높은 민감성을 보이고, 반응적이며, 자녀에 대한 정서적 또는 사회적 지원을 잘 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숙, 문혁준, 2005; 김현미, 도현심, 2004; Coleman & Karraker, 1998, 2003; Donovan, Leavitt, & Walsh, 1990; Leerkes & Crockenberg, 2002). 또한 높은 양육효능감은 비차별적이며 온정적인 양육행동, 자녀를 일관성 있게 규제하고, 합리적으로 지도하는 등의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으며(김미정, 이경남, 2011; 김현미, 도현심, 2004; 이주옥, 2008; 최형성, 2005), 양육효능감이 높을 경우 아동의 학업을 돕는 부모의 양육행동(예: 학교참여, 아동의 공부를 돕는 행동, 아동과 함께 교육 활동에 참여 등)과 관련이 있다(Hoover-Dempsey, Bassler, & Brissie, 1992; Hoover-Dempsey & Sandler, 1997). 본 연구에서도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들은 양육행동에서 자율성을 지지하는 행동을 많이 보이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의 체계화 행동을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고, 반면 양육효능감이 낮은 어머니들은 통제를 많이

하고,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행동을 더 많이 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나 양육스타일을 어머니가 보고한 양육행동과 관련된 설문을 통해 양육효능감과 관계를 살피고 있다. 어머니 자신의 양육행동에 대한 자기 보고식 보고는 어머니가 자신의 실제 양육행동이나 스타일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Huang, Liao, & Chang, 1998). 또한 양육과 관련된 자기 보고는 양육 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양육행동이나 스타일에 관한 것으로 실제로 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유아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정 과제를 제시하여 어머니와 유아가 함께 놀이 하면서 어머니가 어떻게 유아에게 행동하는지를 직접 관찰하여 어머니의 자율성 및 체계화 지지의 양육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 고자 한다.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나 양육스타일과도 관련이 있지만,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학업 성취와 같은 자녀의 사회적·인지적 발달과도 관련이 있다(윤서희, 성지현, 2014; Coleman & Karraker, 2003; Dumka, Prost, & Barrera, 2002; Jones & Prinz, 2005; Junttila, Vauras, & Laakkonen, 2007). 부모의 낮은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낮은 사회정서발달과 낮은 학업 성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storelli, 2001; Donovan & Leavitt, 1989; Swick & Hassell, 1990; Junttila et al., 2007).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학업 성취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이 이러한 관계를 매개한다고 하였다(Junttila et al.,

2007). 양육효능감이 낮은 부모들은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을 방해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발달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들도 있고, 양육행동이나 양육 스타일과 같은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함께 본 연구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마음이론 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 두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와 체계화 지지의 양육 행동이 마음 이론 발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종합하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사회인지적 능력 중 하나인 마음이론 발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이 직접적인지 아니면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와 체계화 지지와 같은 양육행동을 통해 간접적인 것인지 아직 알려진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자율성 및 체계화 지지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마음이론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에 있어 어머니의 자율성 및 체계화 지지가 완전 매개하는지 부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마음이론 이해의 개인적 발달차를 사회적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유아의 상호작용 경험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인지적 요소와 행동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이 마음이론 발달에 기여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 간 관계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매개역할에 대한 검증을 통해 마음이론 발달에 있어 대인관계적 상호작용(interpersonal interac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와 체계화 지지,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자기결정 이론을 바탕으로 유아의 자율성과 유능성을 지지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마음이론 이해의 발달에도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위에서 살펴본 연구목표와 내용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자율성지지와 체계화지지, 유아의 마음이론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마음이론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와 체계화 지지는 매개역할을 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4세 유아 101명과 어머니였다(표 1). 연구대상 유아의 평균 월령은 54.67개월(48개월~59개월), 성별은 남아 55명(54.5%), 여아 46명(45.5%)이었으며, 출생순위에서 첫째아는 54명(53.5%), 둘째아는 26명(25.7%), 셋째이상인 경우는 11명(10.9%)이었고, 외동아는 9명(8.9%)이었다.

어머니의 연령대는 35~40세미만이 49명(48.5%)으로 가장 많았고, 30~35세 미만이 27명(26.7%), 40~45세 미만이 17명(16.8%)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이 45명으로 가장 많았고(44.6%), 2-3년제 대학교 졸업이 35명(34.7%), 고졸 이하는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N (%)
유아 (N=101)	성별		남	55 (54.5)
			여	46 (45.5)
	출생 순위		첫째	54 (53.5)
			둘째	26 (25.7)
			셋째이상	11 (10.9)
		외동	9 (8.9)	
연령		25~30세 미만	3 (3.0)	
		30~35세 미만	27 (26.7)	
		35~40세 미만	49 (48.5)	
		40~45세 미만	17 (16.8)	
		45세 이상	5 (5)	
교육 정도		고졸 이하	14 (13.9)	
		대학교(2-3년제) 졸업	35 (34.7)	
		대학교(4년제) 졸업	45 (44.6)	
어머니 (N=101)		대학원 졸업	7 (6.9)	
	취업		취업모	48 (47.5)
			미취업모	52 (52.4)
			무응답	1 (1)
	직업군		관리자	4 (4)
		전문가	19 (18.8)	
		사무종사자	15 (14.9)	
		판매종사자	2 (2)	
	서비스종사자	5 (5)		
	단순노무종사자	2 (2)		
	학생	1 (1)		
월평균 가정 수입		200만원 이하	5 (5)	
		200~299만원 이하	8 (7.9)	
		300~399만원 이하	26 (25.8)	
		400~499만원 이하	15 (14.9)	
		500~599만원 이하	9 (8.9)	
	600~699만원 이하	8 (7.9)		
	700만원 이상	26 (25.7)		

14명(13.9%), 대학원 이상은 7명(6.9%)이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취업모(학생포함)가 48명 47.5%, 미취업모 52명 52.4%, 무응답 1명으로 나타나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며, 취업모의 경우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19명(18.8%), 회사원과 같은 사무종사자가 15명(14.9%)으로 많았다.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200만원 미만인 가정부터 700만원 이상인 가정까지 100만원 단위로 조사한 결과 300-399만원 이하인 가정과 700만원 이상인 가정이 각각 26곳(25.7%)으로 가장 많았고, 400-499만원 이하 15곳(14.9%), 500-599만원 이하 9곳(8.9%)으로 중상류층에 다수가 분포되어 있었지만 300만원 이하 소득의 가정도 13곳(12.9%) 있었다.

측정도구

유아의 마음이론

마음이론의 다양한 측면들을 측정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잘못된 믿음 과제 4 가지를 일련의 과제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한 가지 과제를 사용하여 유아의 마음이론을 측정하는 것보다 마음이론과 관련된 여러 요소들을 측정할 수 있으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를 넓혀, 마음이론에 대한 개인차를 살펴 보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과제는 Perner, Leekam과 Wimmer (1987)가 고안한 예상 못한 내용물 과제 (unexpected content tasks)로 유아에게 초콜릿이 그려져 있는 상자를 보여주고, 유아의 믿음에 관한 확인질문(control question)과 이후 실제 상자 안에 들어있는 물건(플라스틱 물고기)을 보여주고 난 후 확인질문을 실시한다. 손인형을 등장시켜 그 인형이 초콜릿 상자 안 물건을 예상하는 질문(마음이론 질문, “OO이는 이 상

자를 보고 무엇이 들어있다고 생각할까?” 정답: “초콜릿”)을 한다. 이후 상자 안 물건에 대한 확인질문(예: “상자 안에 진짜 무엇이 들어있지?” 정답: “물고기”)을 실시한다. 손인형의 예상에 대한 질문과 전후에 실시한 확인질문(control question)에 대한 대답까지 모두 맞는 경우 1점으로 최종 점수를 주고, 확인질문이 하나라도 틀린 경우 0점 처리하여 이 과제에서는 0점에서 최대 1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 과제는 Wimmer와 Perner(1983)의 예상치 못한 장소 과제(unexpected location task)로 손인형A가 혼자 색연필을 가지고 놀다가 색연필을 상자에 넣은 후 방을 나가고, 손인형B가 등장하여 그 방에 들어와 상자에 들어있는 색연필을 가지고 놀다가 가방에 색연필을 넣어 두었을 때 처음 등장했던 손인형A가 어떻게 물건의 위치를 예상(마음이론 질문, “A는 색연필을 찾으려고 어디를 볼까?” 정답: “상자”)할지 물어보는 과제이다. 예상 질문 뒤에는 두 개의 확인질문(“색연필은 지금 어디에 있지?” 정답: “가방”, “A는 색연필을 어디에 두었지?”, 정답: “상자”)을 하여 모두 정답인 경우 1점을 예상 확인질문을 틀리거나 확인질문 중 오답이 있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하였다.

세 번째 마음이론 과제는 Flavell, Falvell과 Green(1983)의 외양-실제 과제(appearance-reality tasks)로 외양이 계란 같이 생긴 물건을 보여주고 외양에 대한 확인질문을 하고, 실제로 유아가 물건을 만져보고 탐색하게 한 후 실제 물건(마라카스)이 무엇인지 확인질문을 한다. 이후 다시 손인형을 등장시켜 손인형이 그 물건을 보고 무엇이냐고 예측할지 질문(마음이론 질문, “OO이는 이것을 보고 무엇이냐고 생각할까”, 정답: “계란”)을 하고, 실제 물건에

대한 확인질문(“이것은 진짜로 무엇이냐?”, 정답: “마라카스, 악기, 모래”)을 한다. 이 과제에서도 마음이론 질문과 확인질문들이 모두 맞았을 때 1점을 부여하고 확인질문이 틀린 경우 0번 처리하여 점수 범위는 0~1점이다.

마지막 마음이론 과제는 Bartsch와 Wellman(1989)의 설명과 예상과제(explanation and prediction tasks)로 다른 사람의 관점을 구분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과제이다. 유아에게 속이 빈 반창고 상자와 크기와 모양이 같은 흰색 상자를 제시한 후 반창고의 위치를 예상하는 확인질문을 하고, 유아에게 두 상자를 열어보게 하여 반창고의 위치를 확인시킨다. 유아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질문을 통해 확인한 후, 손인형A를 등장시켜 유아에게 손인형A의 행동을 예상하는 질문(마음이론 질문 1, “A는 반창고를 찾기 위해 무엇을 보려고 할까?” 정답: “반창고 상자”)을 실시한다. 이후 또 다른 손인형B가 등장하여 반창고 상자를 바라보는 행동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질문한다(마음이론 질문 2, “왜 B는 이 상자를 보고 있을까?” 정답: “반창고가 필요해서요.”). 각각의 예상과 설명질문 후에는 실제 반창고의 위치에 대한 확인질문을 실시하여, 마음이론 질문과 관련 확인질문들이 모두 맞은 경우 1점씩을 부여한다. 마지막 과제의 점수 범위는 총 0~2점이다.

4개 과제 점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16에서 .37의($p < .05$ 또는 $p < .01$)범위에서 모두 유의했으며, 내적합치도인 Cronbach's α 는 .60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단일요인에 대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과제가 모두 한 개의 영역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과제의 로딩 값은 .55, .67, .66, .79로 나타났고, 고유값(eigenvalue)은 1.82였고, 변인의

45.4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음 이론 4개 과제를 총합한 점수 범위는 0~5점으로 총점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율성 지지(autonomy support)와 체계화 지지(structure support)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자율성 지지와 체계화 지지에 대한 평가 기준은 Kwon(2012)이 여러 선행연구들의 개념 정의와 관찰기준을 바탕으로 각각의 행동에 대하여 7개의 요소로 구성된 관찰 기준을 사용하였다. Kwon(2012)은 자율성 지지 기준을 위해 Dix와 Branca(2003), Dix, Stewart, Gershoff와 Day (2007)의 연구를 참고하였고, 체계화 지지와 관련해서는 Farkas와 Grolnick (2010), Neitzel과 Stright (2003)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는 통제(control)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유아의 관심, 독립적인 표현이나 생각, 의사결정을 얼마나 격려하는지, 유아의 내적 의욕을 촉진하기 위한 어머니의 말과 행동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자율성 지지의 7개의 요소를 바탕으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율성 지지는 주도성 격려(promotion of initiative), 확장(expansion), 제한(constraint), 힘의 사용(power assertion) 총 4개의 요소가 한 개의 자율성 지지 요인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어 이와 같이 4개 요소로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제한과 힘의 사용은 통제와 관련된 개념으로 평정 후 평균 점수를 역채점하였다.

체계화 지지는 유아가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상적인 스캐폴딩(scaffolding)과 지도를 위해 제공하는 말이나 행동으로 혼란(chaos)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 체계화

지지의 7개 요소를 바탕으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체계화 지지는 명료화(clarity), 적합도(coordination), 정보제공(informative feedback), 기회제공(opportunity), 논리적 근거제공(rationale), 모델제공(resourceful leadership) 총 6개의 요소가 한 개의 체계화 지지 요인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어 이와 같이 구성하였다.

유아와 함께 그림 따라 그리기 과제를 녹화한 영상을 전사하고 전사한 자료와 함께 영상에서 보이는 어머니 행동을 30초 간격으로 행동요소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수준별 정의를 바탕으로 1에서 4수준으로 평정하였다. 자율성 지지행동과 체계화 지지를 구성하는 각 하위 요소별 평균 점수의 총점을 Z점수로 환산한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관찰자 훈련은 본 연구로 수집된 자료 중 연령범위를 벗어나 분석에 사용되지 않은 영상자료를 가지고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와 연구보조자 2명이 자료 영상을 함께 보면서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와 체계화 지지의 하위 범주를 확인하면서 코딩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조작적 정의에 따라 각자 코딩한 후에 일치도를 살펴보았고, 불일치한 부분을 다시 보면서 토론하여 관찰판단에 대한 근거 기준들을 함께 마련하였다.

관찰자간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해 두 명의 연구보조자 외에 다른 2명이 관찰자 훈련을 거친 후, 전체 연구자료의 20%인 20개의 상호작용 영상자료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독립적으로 추가 코딩을 실시하였고, 두 명의 관찰자의 평정으로부터 산출한 관찰자간 일치도는 다음과 같다. 자율성 지지행동의 4개 요소인 주도성 격려 .97, 확장 .94, 제한 .97, 힘의 사용 .94로 일치도가 나왔으며, 자율성 지지의 평균 일치도는 .96이었다. 체계화지지 행동의

6개 요소 명료화 .98, 적합도 .97, 정보제공 .97, 기회제공 .96, 논리적 근거제공 .97, 모델 제공 .96으로 체계화 지지행동의 일치도는 .96이었다. 이중(double)으로 코딩된 자료들의 경우 관찰 자료의 코딩을 담당한 연구보조자의 코딩결과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Meunier와 Roskam (2009)이 개발한 Echelle Globale du Sentiment de Coptence Parentals(EGSCP)를 국내 영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성지현과 백지희(2011)가 타당화한 한국판 양육효능감 척도(K-EGSCP)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EGSCP는 만 1~6세 영유아 부모의 영역별 양육효능감과 양육관련 인지구조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EGSCP의 구성 요인 중 영역별 양육효능감 요인을 사용하였으며, 영역별 양육효능감 요인은 애정(5문항), 일상체계조직(4문항), 훈육(5문항), 놀이(5문항), 교육(3문항)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2개 문항이다.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응답자인 어머니의 평상시 양육행동에 비추어 자신의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전혀 아니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로 응답하게 하였다. 각 하위 영역 평균 점수와 총점을 분석에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양육효능감의 영역별 신뢰도는 훈육 .85, 놀이 .81, 애정 .75, 일상체계조직 .82, 교육 .79였으며, 전체 척도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α 계수는 .92였다.

통제변인: 유아의 언어

유아의 언어 능력은 마음이론 이해와 관련

이 있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도 통제변인으로서 유아의 언어능력이 마음이해 수행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유아가 마음이론을 측정하는 과제를 연구자와 함께 수행하는 동안 어머니는 아동발달검사(K-Child Development Inventory)를 작성하였다. 아동발달검사(K-CDI)는 미국의 Harold Ireton이 개발한 아동발달검사를 김정미와 신희선(2006)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척도이다. 사회성, 자조행동, 대근육·소근육 운동, 표현언어, 언어이해, 글자, 숫자 8개의 하위발달영역과 전체발달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영역별로 15개월~만 6세 아동의 발달적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 발달영역 중 표현언어(50문항)와 언어이해(50문항) 하위영역의 발달월령수준을 분석의 통제변인 점수로 사용하였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연구자가 만 4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받아 수행했던 연구 자료의 일부로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기관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였다(IRB File No. 2014-04-017).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소재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연락하여 기관장의 참여협조를 통해 자원 중인 가정에 연구관련 내용이 담긴 동의서를 배부하여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동의를 이루어진 후 연구자가 각 가정에 연락하여 어머니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을 확인하여 연구 일정을 계획하였다.

어머니가 기관에 방문하였을 때 유아를 기관 내 별도로 마련된 공간(도서실이나 빈 사무 공간 등)에 불러내어 어머니가 준비된 설

문지(인구학적 배경, 아동발달검사(K-CDI), 양육효능감 등)를 작성하는 동안 연구보조자와 유아는 간단한 상호작용을 통해 라포(rapport)를 형성한 후 마음이론 과제를 실시하였다. 훈련받은 연구보조자 2인이 한 조가 되어 기관을 방문하였고, 연구보조자 1인이 실험을 진행하고, 다른 연구보조자가 연구도구 및 설문, 녹화 등을 담당하며 자료를 수집하였다. 어머니-유아의 상호작용과 유아의 마음이론 과제 수행은 추후 분석과 과제 채점 재확인을 위해 녹화되었다.

유아의 마음이론 과제 수행 후, 어머니와 유아에게 에치 어 스케치(Etch-a-sketch)라는 그림을 그리는 도구를 주고, 미리 준비한 그림을 제시한 후 도구를 이용하여 어머니와 유아가 함께 그림 따라 그리기를 완성하도록 요구하였다. 에치 어 스케치(Etch-a-sketch)라는 도구는 사각 프레임에 하단 양쪽에 버튼이 하나씩 있고, 그림을 지우고 싶을 때는 흔들어주면 그렸던 그림을 지울 수 있는 도구이다. 어머니와 유아는 두 개의 버튼 중 각각 하나의 버튼을 맡아 협동하여 그림을 완성하는 과제라는 것과 그림그리기 도구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과제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3.0과 Mplus 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의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측정도구의 내적합치도와 관찰자간 일치도도 SPSS로 산출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마음이론 간

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인 자율성지지 행동과 체계화지지 행동이 매개하는 지에 대한 연구모델의 적합도와 각 변인들 간 경로의 유의성과 효과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Mplus 8.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고 완전한 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하여 χ^2 차이 검증으로 비교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유아의 마음이론 능력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 월령, 표현 및 이해 언어발달수준과 마음이론 간의 상관을 살펴 본 후 유의한 관계가 나타난 월령과 표현언어 수준을 모형에 공변인으로 추가하여 살펴보았다. 모형의 적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고, 간접효과의 유의도 검증을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절차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수를 10000으로 하고 유의수준 .05에서 95%의 신뢰구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 (Chi-square), CFI, NNFI(TLI), RMSEA 지수를 통해 평가하였다. 일반적으로 CFI와 NNFI(TLI)는 .95이상, RMSEA는 .05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 .05에서 .08사이이면 적절한 적합도로 해석한다(Hu & Bentler, 1999).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변인 각각의 평균과 표준편차, 첨도 및 왜도를 산출하고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평균은 3.57 ~ 3.85로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의 하위

표 2. 측정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변인 간 상관 (N = 101)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 양육효능감-훈육											
2 양육효능감-놀이	.53***										
3 양육효능감-애정	.57***	.60***									
4 양육효능감-일상	.53***	.36***	.34***								
5 양육효능감-교육	.66***	.53***	.50***	.54***							
6 양육효능감-총점	.85***	.75***	.73***	.74***	.84***						
7 자율성 지지	.12	.10	.16	.20*	.27**	.22*					
8 체계화 지지	.20*	.30**	.18	.21*	.31**	.30**	.54***				
9 마음이론	.06	.14	.18	.22*	.20*	.20*	.19*	.26**			
10 연령(월령)	-.01	-.03	-.04	-.08	-.06	-.06	-.00	-.15	.27**		
11 표현언어	.20*	.22*	.18	.23*	.24*	.28**	.12	.04	.32**	.16	
12 이해언어	.20*	.27*	.15	.19	.14	.24*	.02	-.00	.16	.18	.58***
평균	3.85	3.57	3.93	3.74	3.82	18.91	-.67	.24	2.09	54.67	62.90
표준편차	.66	.57	.47	.70	.67	2.40	3.39	4.54	1.44	4.01	11.63
왜도	-.75	.48	.50	-.26	-.38	.05	.64	-.71	.39	-.46	-1.28
첨도	1.50	.06	-.00	-.13	.50	.35	.48	.67	-.85	-1.15	.57

* $p < .05$, ** $p < .01$, *** $p < .001$.

요인들끼리는 모두 정적이고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r = .34 \sim r = .66, p < .001$).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일상체계조직, 교육, 총점은 어머니의 자율성지지($r = .20, p < .05; r = .27, p < .01; r = .22, p < .05$)와 체계적지지($r = .20, p < .05; r = .27, p < .01; r = .22, p < .05$)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의 총점의 평균(Z점수로 표준화한 값)은 부적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 수준이 체계화 지지보다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체계화 지지의 총점 평균은 정적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유아와의 함께 과

제를 수행할 시 체계화 지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성 지지는 체계적 지지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 = .54, p < .001$).

유아의 마음이론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총점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r = .20, p < .05$),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r = .19, p < .05$), 그리고 체계화 지지($r = .26, p < .01$)와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고, 어머니가 자율성 지지와 체계화 지지를 많이 해줄수록 유아의 마음이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마음이론은 유아의 연령인 월령과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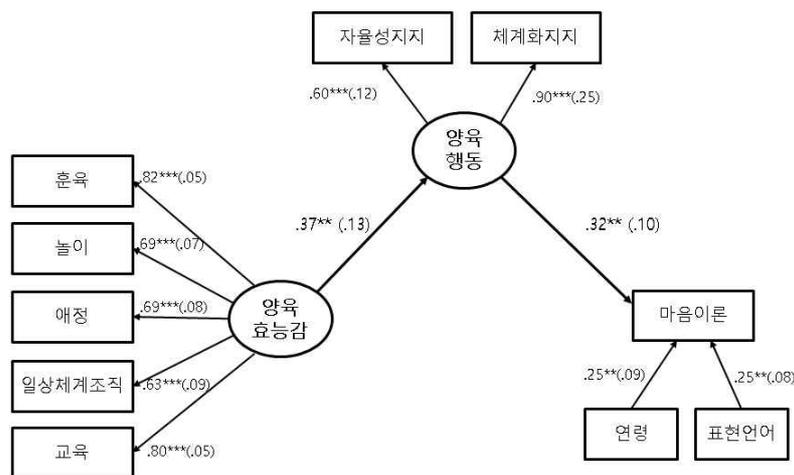
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r = .27, p < .01$), 표현언어 수준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32, p < .01$). 따라서 이 두 변인은 마음이론에 대한 공변인으로 설정하여 모형에서 통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유아의 마음이론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검증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측정 모형의 타당성을 살펴본 후, 매개 변인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또는 완전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비교 검증하기 위해 완전매개효과를 경쟁모형으로 설정했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χ^2 차이 검정결과, 자유도(df)의 차이 1에서 유의확률 .05 수준의 분포 임계치인 3.84보다 작게 나타나 두 모형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분매개모형인 연구모

형과 완전매개모형인 경쟁모형을 모두 살펴본 후 최종모형을 결정하였다.

우선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마음이론과 양육효능감을 부분매개하는 모형의 적합도는 $\chi^2(32) = 41.47 (p = .12)$, CFI = .96, TLI = .95, RMSEA = .06로 적절한 적합도 지수를 보였다. 그러나 연구모형이었던 부분매개 모형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마음이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간접효과가 .05의 유의수준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1, p = .08$).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마음이론과 양육효능감을 완전매개하는 모형의 적합도는 $\chi^2(33) = 41.51 (p = .15)$, CFI = .97, TLI = .96, RMSEA = .05로 좋은 적합도 지수를 보였다. 경쟁모형이었던 완전매개모형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마음이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2, p < .05$). 따라서, 본 연구의 최종모형은 경쟁모형이었던 완



** $p < .01$, *** $p < .001$

주. 그림에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된 수치임. ()는 S.E.

그림 1. 어머니 양육행동을 매개로한 최종모형의 경로계수와 요인부하량

표 3. 어머니 양육행동을 매개로한 경로모형의 직접, 간접 및 총 효과 (N = 101)

변인간 경로	표준화된 계수			95% 신뢰구간 (Bootstrapped)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양육행동 → 유아 마음이론	.32** (.10)	-	.32**	.15 ~ .49
연령 → 유아 마음이론	.25** (.09)	-	.25**	.09 ~ .39
표현언어 수준 → 유아 마음이론	.25** (.09)	-	.25**	.11 ~ .38
양육효능감 → 양육행동	.37** (.13)	-	.37**	.14 ~ .57
양육효능감 → 유아 마음이론	-	.12* (.06)	.12*	.04 ~ .24

* $p < .05$. ** $p < .01$.

Bootstrap = 10000, ()의 수치는 S.E.

전매개모형으로 보고, 주요 변인간 추정된 표준화된 경로계수를 그림 1에 제시하고 경로의 직·간접 효과 및 총효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 모형으로 채택된 완전매개 모형의 각 경로에 대한 Bootstrapping 분석 결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직접 경로계수의 95% 신뢰구간은 .15 ~ .49($\beta = .37, p < .01$),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마음이론에 미치는 직접 경로계수의 95% 신뢰구간은 .14 ~ .57($\beta = .32, p < .0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마음이론에 대한 간접경로 계수의 95% 신뢰구간이 .04 ~ .24($\beta = .12, p < .01$)로 유의하였다. Kline(1998)에 따르면, 경로계수의 절대값이 .10보다 작으면 작은 효과, .10에서 .50사이이면 중간 효과, .50이상이면 큰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로의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마음이론에 미치는 영향은 중간 크기의 효과인 반면에,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을 거쳐 유아의 마음이론에 미치는 영

향은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만 4세 유아를 대상으로 마음이론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자율적 및 체계화 지지의 역할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마음이론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어머니의 양육행동인 자율성 지지와 체계화 지지를 함께 살펴보았을 때는 이러한 양육행동의 매개를 통해 유아의 마음이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총점은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즉,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마음이론 이해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의 영역별 하위요인과 마음이론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하위요인 중 일상체계 조직과 교육영역에서의 효능감 영역만이 유아의 마음이론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

다. 즉, 어머니 자신이 자녀의 규칙적이고 일관된 생활습관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있다는 믿음과 자녀에게 무엇이든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유아의 높은 사회인지 발달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이러한 신념과 믿음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시 모델링, 강화, 코칭과 같은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으로 유능한 행동을 학습할 수 있는 환경(Putallaz & Heflin, 1990)을 조성하고, 이 과정에서 유아들은 학습에 대한 최적의 환경을 얻게 되고, 사회인지적 이해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또는 학업성취와 같은 인지발달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윤서희, 성지현, 2014; Coleman & Karraker, 2003; Dumka, Prost, & Barrera, 2002; Jones & Prinz, 2005; Junttila, Vauras, & Laakkonen, 2007)과 같이 높은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긍정적 발달과 관련이 있다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자율성 및 체계화 지지와 같은 양육행동과도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높은 양육효능감을 가진 어머니는 유아와의 상호작용시 자율성 지지와 체계화 지지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애정 영역만을 제외하고, 모든 하위 영역이 체계화 지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들은 유아들에게 상호작용시 명확한 설명, 정보 및 근거 제공, 유아와의 조화로운 조절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율성 지지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위 영역 중에는 일상체계조직과 교육영역의 효능감만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상호작용시 유아에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유아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을 확장해주거나 제한이나 통제를 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높은 양육효능감이 긍정적인 양육행동 또는 양육스타일과 관련이 있다는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예: 김미숙, 문혁준, 2005; 김미정, 이경남, 2011; 김현미, 도현심, 2004; 이주옥, 2008; 최형성, 2005; Coleman & Karraker, 1998, 2003; Donovan, Leavitt, & Walsh, 1990; Hoover-Dempsey, Bassler, & Brissie, 1992; Hoover-Dempsey & Sandler, 1997; Leerkes & Crockenberg, 2002)를 확장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자율성 및 체계화 지지는 각각 유아의 마음이론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구조모형에서 하나의 잠재변인으로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마음이론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결정 이론에 따르면(Deci, Ryan, & Williams, 1996), 사회적 상호작용은 유아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하며,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와 체계화는 유아의 이러한 심리적 상태를 충족시키면서 동기화된 행동을 내면화하게 한다.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는 유아에게 스스로 타인의 관점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Vinden, 2001), 체계화 지지는 유아에게 명확하게 원인과 결과에 대한 설명, 예측에 대한 격려, 상황에 대한 정보와 근거 제공(Farkas & Grolnick, 2010)을 통해 유아가 상황에 대해 예측해보고, 원인과 결과에 대한 효율적이고 인지적인 유능성을 경험하게 하여 마음이론 이해의 발달을 돕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자율성 및 체계화 지지, 유아의 마음이론 간의 관계에 대한 구조 모형의 결과를 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양육효능감과 마음이론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구조모형에서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와 체계화 지지의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마음이론 이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마음이론 이해 발달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양적·질적 경험에 따라 발달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회적 구성주의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와 체계화 지지가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자기결정 이론도 지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인들의 관계가 동일한 시점에서 살펴졌기 때문에, 영향력의 방향성이나 안정성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어머니의 높은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어머니의 자율성 및 체계화 지지와 같은 긍정적 양육행동과도 관계가 있었다. 또한 매개모형의 검증 결과, 유아의 마음이론에 대한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영향이 어머니의 자율성 및 체계화 지지에 의해 완전 매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예측변인과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가정하여 검증했지만 본 연구는 같은 시기에 수집된 횡단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이므로 인과 관계로 해석하는 것에는 주의해야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와 체계화 지지와 같은 상호작용적 행동들은

유아의 과제 이해 수준, 과제 참여 수준, 수행 정도 등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가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 유아의 마음이론 이해 능력간의 관계 정도를 밝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종단적인 설계와 실험 및 훈련효과 등을 살펴보는 후속 연구에 의해 이러한 영향관계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마음이론이 습득되는 시기의 개인차를 살피기 위하여 만 4세 유아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대상 연령을 확장하여 마음이론이 시작되는 시기나 이후 더 복잡한 수준의 마음이론 이해(예: 이차순위마음이론)에 관하여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와 설명력이 어떻게 지속되거나 변화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유아 상호작용을 직접 관찰해야 했기 때문에 연구대상 표집에 어려움이 있어 연구에 협조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을 이용하는 유아와 어머니가 주요 대상이었다. 이 때문에 다양한 사회계층이나 지역, 가족 형태 등을 고려한 연구 대상을 표집하고 많은 수의 연구 대상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얻었지만 관계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크지 않았다. 연구의 일반화에 주의가 요구되며, 추후 연구대상을 다양화하고 다른 지역이나 배경을 가진 연구 대상을 포함한 관련 연구가 이어져 결과들이 축적된다면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결과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의 개인차를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사회적

지적 발달에 있어서 대인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와 체계화 지지가 유아의 마음이론 이해의 개인차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밝힘으로써 자기결정 이론이 마음이론 발달에도 적용됨을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정 내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와 체계화 지지와 같은 양육행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에서 교사의 교수방법이나 유아와의 상호작용 행동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 유아의 긍정적인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아를 둘러싼 주변 환경적 인물들의 역할과 행동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사교육 프로그램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또는 교수자의 교수효능감은 그러한 신념과 인지적 요소를 지닌 행위주체자의 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아와 관계를 맺고 있는 유아 주변 성인들의 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지지할 수 있는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미숙, 문혁준 (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 효능감과 양육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 25-35.
- 김미정, 이경남 (2011). 영아기와 걸음마기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 253-271.
- 김정미, 신희선 (2006). K-CDI 아동발달검사 표준화 연구. *아동학회지*, 27, 39-53.
- 김현미, 도현심 (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 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 279-298
- 성지현, 백지희 (2011). 한국판 양육 효능감 척도(K-EGSCP)의 타당화 연구:영역별 양육 효능감과 관련 인지구조 척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 135-150.
- 윤서희, 성지현 (2014).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정서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역할. *아동학회지*, 35, 199-222.
- 이주옥 (2008).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의 비교. *영유아교육연구*, 11, 41-81.
- 최형성 (2005). 양육효능감의 매개역할: 양육행동의 인과관계 모형. *아동학회지*, 26, 351-365.
- Bandura, A., Barbaranelli, C., Caprara, G. V., & Pastorelli, C. (2001). Self efficacy beliefs as shapers of children's aspirations and career trajectories. *Child Development*, 72, 187-206.
- Bartsch, K., & Wellman, H. (1989). Young children's attribution of action to beliefs and desires. *Child Development*, 60, 946-964.
- Bernier, A., Carlson, S. M., & Whipple, N. (2010). From external regulation to self regulation: Early parenting precursors to young children's executive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81, 326-339.
- Choe, D. E., Lane, J. D., Grabell, A. S., & Olson, S. L. (2013). Developmental precursors of young school-age children's hostile attribution bias. *Developmental Psychology*, 49, 2245-2256.

- Coleman, P. K., & Karraker, K. H. (1998).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Coleman, P. K., & Karraker, K. H. (2000). Parenting self-efficacy among mothers of school-age children: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correlates. Family Relations, 49*, 13-24.
- Coleman, P. K., & Karraker, K. H. (2003). Maternal self-efficacy beliefs, competence in parenting, and toddler's behavior and development statu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4*, 126-148.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ur*. New York: Plenum.
- Deci, E. L., Ryan, R. M., & Williams, G. C. (1996). Need satisfaction and the self-regulation of learning.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8*, 165-183.
- Deković, M., & Gerris, J. R. M. (1994). Developmental analysis of social cognitive and behavioral differences between popular and rejected childre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5*, 367-386.
- Denham, S. A., Caverly, S., Schmidt, M., Blair, K., DeMulder, E., Caal, S., ...Mason, T. (2002). Preschool understanding of emotions: Contributions to classroom anger and aggress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3*, 901-916.
- Dix, T., & Branca, S. H. (2003). Parenting as a goal-regulation process. In L. Kuczynski (Ed.), *Handbook of dynamics in parent-child relations* (pp.167-188). Thousand Oaks, CA: Sage.
- Dix, T., Stewart, A. D., Gershoff, E. T., & Day, W. H. (2007). Autonomy and children's reactions to being controlled: Evidence that both compliance and defiance may be positive markers in early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8*, 1204-1221.
- Donovan, W. L., & Leavitt, L. A. (1989). Maternal self-efficacy and infant attachment: Integrating physiology, perceptions, and behavior. *Child Development, 60*, 460-472.
- Donovan, W. L., Leavitt, L. A., & Walsh, R. O. (1990). Maternal self efficacy: illusory control and its effect on susceptibility to learned helplessness. *Child Development, 61*, 1638-1647.
- Dumka, L. E., Prost, J., & Barrera Jr, M. (2002). The parental relationship and adolescent conduct problems in Mexic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Couple and Relationship Therapy, 1*, 37-57.
- Dunn, J., Brown, J., Slomkowski, C., Tesla, C., & Youngblade, L. (1991).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other people's feelings and beliefs: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antecedents. *Child Development, 62*, 1352-1366.
- Farkas, M. S., & Grolnick, W. S. (2010). Examining the components and concomitants of parental structure in the academic domain. *Motivation and Emotion, 34*, 266-279.
- Fenning, R. M., Baker, B. L., & Juvonen, J. (2011). Emotion discourse, social cognition, and social skills in children with and without developmental delays. *Child Development, 82*, 717-731.
- Flavell, J. H., Flavell, E. R., & Green, F. L.

- (1983). Development of the appearance-reality distinction. *Cognitive Psychology*, 15, 95-120.
- Grolnick, W. S., & Farkas, M. (2002). Parenting and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self regulation.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2nd., Vol. 5, pp. 89-110).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Grolnick, W. S., Kurowski, C. O., & Gurland, S. T. (1999). Family processes and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self-regulation. *Educational Psychologist*, 34, 3-14.
- Hoover-Dempsey, K. V., & Sandler, H. M. (1997). Why do parents become involved in their children's educatio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7, 3-42.
- Hoover-Dempsey, K. V., Bassler, O. C., & Brissie, J. S. (1992). Explorations in parent-school relation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85, 287-294.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 1-55.
- Huang, C. Y., Liao, H. Y., & Chang, S. H. (1998). Social desirability and the clinical self-report inventory: Methodological reconsidera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4, 517-528.
- Hughes, C., Deater-Deckard, K., & Cutting, A. L. (1999). 'Speak roughly to your little boy'? Sex Differences in the Relations Between Parenting and Preschoolers' Understanding of Mind. *Social Development*, 8, 143-160.
- Johnson, C.,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167-175.
- Jones, T. L., & Prinz, R. J. (2005). Potential roles of parental self-efficacy in parent and child adjustment: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5, 341-363.
- Junttila, N., Vauras, M., & Laakkonen, E. (2007). The role of parenting self-efficacy in children's social and academic behavior.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22, 41-61.
- Kagitcibasi, C. (2005). Autonomy and relatedness in cultural context: Implications for self and famil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6, 403-422.
- Kline, R. B. (1998). Software review: Software programs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mos, EQS, and LISREL.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16, 343-364.
- Kwon, J. (2012). Linking parental autonomy support and parental structure to the development of inhibitory control in 4-year-old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Georgia. GA, United States.
- Leerkes, E. M., & Crockenberg, S. C. (2002). The development of maternal self efficacy and its impact on maternal behavior. *Infancy*, 3, 227-247.
- Liszkowski, U. (2013). Using theory of mind.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7, 104-109.
- Meins, E. (1997). Security of attachment and maternal tutoring strategies: Interaction within the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5, 129-144.
- Meins, E., Fernyhough, C., Russell, J., & Clark

- Carter, D. (1998). Security of attachment as a predictor of symbolic and mentalising abilities: A longitudinal study. *Social Development, 7*, 1-24.
- Meunier, J-C., & Roskam, I. (2009). Self-efficacy beliefs amongst parents of young children: Validation of a self-report measure. *Journal of Child & Family Studies, 18*, 495-511.
- Neitzel, C. & Stright, A. D. (2003). Mothers' scaffolding of children's problem solving: Establishing a foundation of academic self-regulatory competenc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7*, 147-159.
- O'Reilly, J., & Peterson, C. C. (2014). Theory of mind at home: Linking authoritative and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s to children's social understanding.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4*(12), 1934-1947.
- Perner, J., Leekam, S. R., & Wimmer, H. (1987). Three-year-olds' difficulty with false belief: The case for a conceptual deficit.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5*, 125-137.
- Putallaz, M., & Heflin, A. H. (1990). Parent-child interaction.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 189-).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eeve, J., Jang, H., Carrell, D., Jeon, S., & Barch, J. (2004). Enhancing students' engagement by increasing teachers' autonomy support. *Motivation and Emotion, 28*, 147-169.
- Ruffman, T., Slade, L., & Crowe, E. (2002). The relation between children's and mothers' mental state language and theory of mind understanding. *Child Development, 73*, 734-751.
- Ruffman, T., Slade, L., Devitt, K., & Crowe, E. (2006). What mothers say and what they do: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theory of mind, language and conflict/cooperation.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4*, 105-124..
- Sanders, M. R., & Woolley, M. L.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self efficacy and parenting practices: Implications for parent training.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1*, 65-73.
- Shumow, L., & Lomax, R. (2002). Parental efficacy: Predictor of parenting behavior and adolescent outcomes.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2*, 127-150.
- Sierens, E., Vansteenkiste, M., Goossens, L., Soenens, B., & Dochy, F. (2009). The synergistic relationship of perceived autonomy support and structure in the prediction of self regulated learning.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9*, 57-68.
- Sung, J., & Hsu, H. C. (2014). Collaborative mother - toddler communication and theory of mind development at age 4.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5*, 381-391.
- Swick, K. J., & Hassell, T. (1990). Parental efficacy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in young children. *Journal of Instructional Psychology, 17*, 24-32.
- Symons, D. K., & Clark, S. E. (2000). A longitudinal study of mother - child relationships and theory of mind in the preschool period. *Social Development, 9*, 3-23.
- Teti, O.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o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 Vinden, P. G. (2001). Parenting attitudes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mind: a comparison of Korean American and Anglo-American families. *Cognitive Development*, 16, 793-809.
- Wellman, H. M. (1990). *The child's theory of mind*. London: MIT press.
- Wellman, H. M. (2017). Learning a theory of mind. In V. Slaughter, & M. de Rosnay (Eds.), *Theory of Mind Development in Context* (1st, pp. 1-21). New York, NY: Routledge.
- Wimmer, H., & Perner, J. (1983). Beliefs about beliefs: Representation and constraining function of wrong beliefs in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deception. *Cognition*, 13, 103-128.
- 1차원고접수 : 2018. 01. 15.
수정원고접수 : 2018. 03. 03.
최종게재결정 : 2018. 03. 05.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arenting Efficacy and Children's Theory of Mind: Mediating Role of Maternal Autonomy and Structure Support

Jihyun Sung

Dept. of Child Psychology and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efficacy, autonomy support, and structure support behaviors on children's theory of mind. Participants were 101 4-year-old children (55 boys, 46 girls) and their mothers. Maternal parenting efficacy was measured using K-EGSCP by maternal self-report and maternal autonomy and structure supports were observed and graded from mother-child interactions when creating a drawing with an Etch-a-Sketch. Children's levels of theory of mind were measured by a series of false belief tasks provided by an experimenter. Maternal parenting efficac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children's theory of mind, and maternal autonomy and structure supports were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associated with children's theory of mi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ith these three variables show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arenting efficacy and children's theory of mind was completely mediated by a parenting latent variable including maternal autonomy and structure supports. These findings confirm social constructive perspectives of children's theory of mind development and self-determination theory for maternal autonomy support and structure support; polit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 parenting efficacy, maternal autonomy support, maternal structure support, theory of mind